8살 몽골 소년, 티베트 불교 중심 선 이유는?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 환생자
최근 달라이라마 법회서 공개
일반교육 받고 간단사원 생활도
18세에 출가 스스로 선택키로
중국 반발…무역 관세 부과도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에서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10대 제쭌담빠 A.아타나르. 사진출처=뉴욕타임즈

몽골에서 태어난 8살 소년이 티베트 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17일 일본의 '도쿄신문'과 '커리얼 재팬' 등의 언론은 복수의 외신 등을 인용해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제쭌 담빠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를 둘러싼 문제를 보도했다.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외몽골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내몽골의 짱갸 후툭투와 함께 몽골불교계를 이끌었다. 전통적으로 티베트불교에선 달라이라마, 판첸라마와 함께 두 후툭투를 더해 '4대 라마'라고 칭하며 극동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티베트불교 문화권에 강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중 8대 제쭌 담빠는 청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이 대칸으로 추대하면서 복드칸이라는 이름으로 즉위, 독립운동을 이끌어 이후 공산국가가 된 몽골에서도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9대 제쭌 담빠는 몽골이 공산화된 이후에 티베트에서 환생했으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신분이 비밀에 붙여졌고, 90년대에 들어 몽골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야 그 신분이 공개됐다. 2012년 9대 제쭌 담빠는 울란바타르에서 입적했으며 "나는 몽골에서 환생할 것이고, 환생자의 선정과 탐색은 달라이라마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환생자 탐색단에 함께한 몽골의 종교학자 바타 마시기쉬 빅사는 "몽골에서 환생자를 찾는 제도는 공산화와 함께 그 맥이 거의 끊겨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총 8만명 후보자들 가운데 종교적 관습과 의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9명이 탐색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종 탐색에서 한 살 배기 아이만이 9대 제쭌 담빠가 사용하던 법구를 손에 쥐고, 탐색단에 있던 전생의 시자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앉았다. 바타 박사는 "그 자리 모든 스님과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스승을 찾아낸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안전을 위해 7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제쭌 담빠의 환생자는 지난 3월, 인도 다람살라에서 몽골불자들의 요청으로 봉행된 달라이라마의 법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A.아타나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8세의 소년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현재 안전의 이유에서 쌍둥이 중 누가 제쭌 담빠의 환생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미 16년도의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과 제쭌 담빠의 환생자 관련 발표에서 중국은 몽골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 관세를 부과했으며, 양국 회담도 취소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수출입과 사회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의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달라이라마의 몽골대표인 뗄로 린뽀체는 "소년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됐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제쭌 담빠는 몽골불자들의 지도자이고,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필수적인 종교적 지도 외엔 소년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야말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A.아타나르는 평범하게 일반 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간단사원에서 정규적인 불교교육도 받고 있다. 간단사원과 아타나르의 가족은 "아이가 최종적으로 출가하거나 불교지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할지는 18세가 되면 아이에게 직접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국 불교계 "스님 희화화 멈춰"

AI가 만든 '승려들 일탈' 사진 온라인서 무분별 유포


태국 불교계가 AI가 만든 '가짜 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출처=카오소드

태국 불교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님들이 주황색 가사를 두른 채 헤비메탈을 연주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며 사고를 내는 모습 등을 담은 조작된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희화화(戱畫化)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는 가짜 사진을 유포할 시 사이버범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1월 12일 카오소드(Khaosode)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불교협회 사무국장이자 국립불교국(NOB) 대변인인 수팟 무엉마(Suphat Mueangma)는 "태국 불교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사진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진들을 전부 삭제하고 유포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다. 승려들이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레이싱 경기장에서 헬멧 등 장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태우는 승려 등 부패한 모습이 담겼다.

현재 이 사진들은 온라인상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 정부와 태국 불교계는 "해당 사진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진짜 스님들이 일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해 불교 평판을 저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사진들을 최초 제작·유포한 사람은 '컴퓨터에 의한 허위 정보 생성·유포 등 사이버범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에서도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여론은 냉담한 반응이다.

카오소드는 사설을 통해 "'진짜' 승려들이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만나는 등 부패한 일은 실제 있는 일"이라며 "불교계는 이러한 논란에 발끈하는 대신 태국 젊은이들을 만나서 불교에 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태국인들이 태국 주류 불교에서 멀어지게 만든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불교계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선의로 변형된 고대 마애불에 당국 처벌 '난색'

〈善意〉

쓰촨성 1400년 된 고대 석불
현지 노인 신심으로 페인트칠


채색되기 전 마애불의 모습(상), 채색된 후의 모습(하). 사진출처=웨이신 뉴스

중국 쓰촨성에서 발견된 1400년이 넘은 고대 석불에 색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전해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11월 15일 중국의 '웨이신 뉴스'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석불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은 현재 노인들로 신심을 가지고 선의로 했다는 진술에서 당국이 처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쓰촨성 난장현(南江县), 바중시(巴中市)에 소재한 마애불들은 지난 2021년 새로 발견된 불상들이다. 지난 7월 쓰촨대학 고고학·박물관학부와 바중시 문화유적국이 발표한 〈쓰촨성 난장현 스페이허(石飞河) 마애조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불상들은 1400년 전 북위 말기부터 당나라 후기까지 연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했다. 바중시 문화유적국은 "북위말의 마애불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특히 자연석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이렇게 불상들이 조성된 것은 쓰촨에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쓰촨과 중원북방 지역간의 불교문화와 예술교류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아침, 난장현 문화유물보호 연구센터에서는 "불상들에 무단으로 페인트를 사용한 채색작업이 더해졌으며, 현재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복원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사건은 11월 13일 일어났다. 당국은 조사를 벌여 당시 주민인 왕모 씨와 그 딸인 리모 씨의 증언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인근 마을의 예모 씨에게 부탁하여 마애불에 옷과 상호를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왕모 씨는 "이 부처님을 예경하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감사의 의미에서 가사를 공양하고 상호를 새로 그리는 뜻에서 채색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바중시 문화유적국 직원은 "당시 마애불들에는 보호를 위한 임시 건물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채색작업 당시 이미 사건을 알아챘으나 마애불들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어 작업을 제지할 수 없었다. 유적국 직원과 공안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공안은 "불상에 채색한 사람들은 모두 70~80대 노인들이다. 신행활동으로 채색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강력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교육과 일정 수준의 경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장현 인민정부 측 역시 취재진들에게 "현지 마을 주민들은 불상에 채색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건발생 후 지자체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현장에 보호조치를 추가했으며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및 복원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다. 채색에 사용된 페인트들은 대부분 아크릴 페인트로 전문가는 "복원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부분까지의 완벽복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진다수 베이징대 고고학 교수는 "불상이 발굴된 시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귀중한 불상으로 이러한 석조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어렵다"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룸비니에 대규모 러시아 불교 사원 착공

47억 규모…2025년 완공 예정


룸비네서 열린 러시아 불교사원 건설 착공식 모습. 사진출처=카트만두포스트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로 알려진 네팔 룸비니에 2층짜리 러시아 불교 사원 건설이 시작됐다.

11월 17일 카트만두포스트(the kathmandupost)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108년 된 성 조지 수도원을 상징하는 이 불교 사원의 건설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팔 주재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불교 사원 건설 재단 및 러시아 불교 순례자들이 3억 루피(한화 약 46억6500만원)를 공동 투자해 시작됐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네팔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세이 노비코프(Aleksei Novikov)는 러시아 승려들의 염불과 함께 진행된 착공식에서 성 조지 수도원에서 가져온 돌 조각을 불단에 올려놓았다.

룸비니개발기금(Lumbini Development Fund)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네팔 국외 거주자들의 큰 도움도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금까지 27개국이 룸비니에 그들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한 사원과 수도원을 지었다. 룸비니 개발 기금에 따르면 룸비니 내 불교 구조물 건설을 위해 40개국 및 단체들과 협약이 체결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커버물 세탁가능

방석 35만원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